

KIA 네일이 돌아왔다

KS 앞두고 상무와 연습경기...8월 24일 부상 후 첫 실전
아홉타자 상대 1피홈런 2탈삼진...최고구속 151km 찍어
“부상 부위 통증 없다...시즌 루틴으로 모든 구종 점검해”



KIA 타이거즈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한국시리즈 위망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네일이 9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상무야구단의 연습경기

를 통해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31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1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을 기록했다. 최고 스피드는 151km.

지난 8월 24일 NC원정에서 타구에 맞아 턱관절 골절 부상을 입었던 네일은 이날 다시 마운드에 올라 실전을 소화했다.

네일은 지난 4일 타자들을 타석에 세우고 33개의 공을 던지면서 부상 후 첫 라이브 피칭을 했다. 그리고 상무를 상대로 경기에서 나선 네일은 1회에는 안전망을 앞에 두고 피칭을 했다.

KIA는 네일이 경기 도중 타자가 친 공에 맞아 크게 다쳤던 만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상무에 양해를 구하고 안전망을 설치했다.

선두타자 유승민을 상대한 네일은 초구에 몸쪽 높은 공을 던졌다. 스트라이크존은 벗어났지만 전 광판에는 150km가 찍혔다. 네일은 두 번째 낮은 볼 뒤 3구째 2루수 플라이로 첫 아웃카운트를 잡았다.

네일은 2번 박찬혁과의 3구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3번 한동희를 5구째

유격수 땅볼로 잡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11개의 공을 던진 네일은 2회에는 안전망을 치우고 본격적인 투구에 나섰다.

선두타자 이재원에게 던진 147km 직구가 중앙 담장 넘어가면서 실점은 했지만 이후 5명을 상대해 모두 깔끔하게 처리했다.

박정현을 6구째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네일은 조세진은 2스트라이크 2볼에서 몸쪽 낮은 변화구로 스탠딩 삼진을 잡았다. 정민규에게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네일은 2구째 2루 땅볼로 3번째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이때 투구수가 25구로 그쳤던 네일은 더 공을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재상을 상대로 두 차례 방망이를 헛들게 한 네일은 4구째 스탠딩 삼진을 잡았다. 투구수는 29구, 네일은 추가 피칭을 요청했고 KIA 출신의 포수 김선우가 타석에 들어섰다.

몸쪽 높은 볼을 던진 네일은 2구째 2루수 플라이를 잡으면서 31구로 등판을 마무리했다.

직구 1개를 던져 151km를 찍은 네일은 투심(145-149km·12개), 스윙퍼(129-13km·10개), 체인지업(136-140km·5개), 커터(138-142km·3개)도 구사했다.

네일은 등판 이후 불행 피칭에 나서 20개의 공을 더 던졌다.

네일은 “다시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전체적인 피칭은 만족스럽다. 시

즌과 똑같이 경기 루틴을 지키면서 피칭을 했고, 모든 구종을 체크했다”며 “오늘 가장 큰 수확은 부상 부위에 통증이 없고, 마운드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다. 몸상태가 좋고, 트레이닝 파트에서 관리를 잘해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감사하다고 전하고드리고 싶다. 한국시리즈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네일에 이어 양현종-에릭 라우어-윤영철-곽도규가 마운드에 올라 컨디션을 점검했다.

경기는 장단 22안타를 몰아친 KIA의 16-6승리로 마무리됐다.

2회 소크라테스의 우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에 이어 3회에는 김도영이 좌월 투런포를 날렸다. 5회에는 최원준도 홈런타자 대열에 합류하는 등 KIA는 화려한 타격을 선보였다.

상무에서는 4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나선 이재원이 네일에 이어 라우어를 상대로 홈런을 날리면서 힘을 과시했다. 김선우도 라우어와의 승부에서 좌월 솔로포를 기록했다.

첫 연습경기에서 시원한 홈런을 선보인 김도영은 “홈런에 대한 생각은 없이 강한 타구를 만들고 싶었다. 강한 타구를 만들려면 일단 중심에 맞아야 되는 것이다. 홈런 생각 안 하니깐 확실히 그런 타구가 나온 것 같다”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꾸준히 시합 때마다 좋은 타구를 만들어야 좋은 감을 가지고 시리즈에 들어갈 것 같다. 남은 연습경기에서 좋은 타구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할 때 ‘지금 잘 된다’고 스스로 주문하겠다”고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연습경기에는 1만5415명이 입장해 뜨거운 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한국시리즈 등판을 기다리는 KIA 타이거즈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상무야구단의 연습경기에서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시리즈 등판을 기다리는 KIA 타이거즈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상무야구단의 연습경기에서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소화하며 컨디션을 점검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LG-KT '끝까지 간다'

KT, 준PO 4차전 연장 11회 접전 끝 6-5 승...내일 잠실서 5차전

2024 KBO 준플레이오프에서 '끝장 승부'가 펼쳐진다.

KT위즈가 9일 KT위즈파크에서 열린 LG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연장 11회에 나온 심우준의 끝내기 안타로 6-5 승리를 거뒀다.

이와 함께 두 팀의 전적이 2승 2패가 되면서, 11일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마지막 승부가 전개된다. LG가 2회초 김현수와 박해민의 백투백 홈런으

로 먼저 2점을 만들었다. 2회말에는 KT 문상철이 좌월 솔로포로 응수했다.

LG가 3회초 1점을 더하면 달아났지만 KT가 4회말 3점을 뽐내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KT는 5회 나온 강백호의 홈런으로 5-3을 만들며 리드를 이어갔다. 그러나 8회초 포수 장성우가 패스트볼이 나오는 등 KT가 5-5 동점을 허용했고,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연장 11회말 강백호가 선상 안에 떨어지는 타구로 2루로 향했다.

이어 김상수가 고의 사구로 출루하면서 무사 1:2 루. 황재균이 번트를 시도했고 3루수 문보경은 3루에 공을 던졌지만, 야수 선택이 기록됐다.

이와 함께 무사 만루가 됐고 배정대가 타석에 섰다. LG가 백승현을 대신해 정우영을 마운드에 투입했고, 배정대가 2루 땅볼 때 홈에 들어오던 주자가 아웃이 됐다. 이어진 1사 만루, 대타 천성호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LG로 분위기가 기울어 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심우준의 타구가 2루 방향으로 향했고, 공을 잡으려던 유격수 오지환과 2루수 신민제가 충돌했다. 그 사이 심우준이 1루에 안착하면서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페퍼스 “올해는 더 높이 도약할 것”

2024-2025시즌 V리그 출정식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2025시즌 V리그를 앞두고 열린 출정식에서 팀의 도약을 다짐했다.

페퍼스는 9일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출정식 'BRAND NEW PEPPERS'를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신인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단, 김동연 단장, 장소연 감독, 코치진과 400여명의 팬이 모였다.

페퍼스는 팀 슬로건인 “Together as One Team”이 새겨진 티셔츠로 갈아입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이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주장 박정아는 “비시즌 동안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명료한 포부를 밝혔다.

장소연 감독은 “시즌을 준비하면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원팀이라는 슬로건처럼 원팀으로 거침없이 정진하고, 모든 선수들이 플레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또 “관중석에 있는 페퍼스의 또다른 선수단인 팬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선수단이 팬들이 작성한 질문지에 답하며 소통에 나섰다.

세터 박사랑은 “시즌 준비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토스’다. 토스할 때 자세나 타이밍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고 말했으며, 지난 3일 2024 KOVO 컵대회 GS칼텍스 전을 통해 공식전에 데뷔한 세터 박수빈은 “처음 뛰었지만 생각보다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 다음에 투입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팬들은 선수단을 향한 팬심을 가득 담아 드러냈다.

김해지(26)씨는 “특히 하혜진·박경현 선수의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10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출정식 'BRAND NEW PEPPERS'를 통해 2024-2025시즌 V리그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팬”이라며 “최근 마무리한 컵대회를 보니 미들블록 커 출신 감독의 영향 때문인지 블로킹이 좋아지고 이동공격, 속공도 많아진 것 같아 이번 시즌 특히 기대된다”고 말했다.

누나 부부, 어린 조카들과 함께 출정식을 찾은 이선봉(39)씨는 “늘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줄 아는 선수들이 더 응원하고 싶다”며 “원래 우리 부부만 배구를 좋아했는데 매형이 관심을 보여서 전파했다. 이제 초등학생 조카들도 함께 경기를

즐긴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웃어 보였다.

출정식 이후에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메인 출입구에서 박정아-한다혜-장위가 참여하는 미니 사인회가 진행됐다.

페퍼스는 오는 22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도로공사와의 개막전으로 V리그 포문을 연다. 이후 25일 오후 7시 안방인 페퍼스타디움에서 정관장을 상대한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최경주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골프꿈나무 레슨이 8일 오후 광주시 남구 빛고을CC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주 프로가 골프꿈나무들에게 레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최경주, 골프 꿈나무에 노하우 전수

광주도시공사와 함께 중·고생 대상 훈련 진행

한국인 최초 PGA 우승자 최경주가 광주·전남 꿈나무 골프 선수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지난 8일 오후 '최경주와 광주도시공사가 함께하는 골프꿈나무 레슨'이 광주시 남구 빛고을CC에서 열렸다.

최경주는 레슨에 참여한 10명의 중·고등학생 골프 꿈나무를 대상으로 그립 잡기 등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진행했다.

꿈나무들은 최경주가 직접 교정해 준 그립을 그대로 5분간 유지하며 감을 익혔다.

목표 방통고 1학년 허도경은 “전에는 그립을 무겁게 잡았는데 프로님이 잡아주시니 한층 부드럽게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이들은 병커에서 ‘해머스윙’ 훈련을 통해 앵글과 파워를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범을 보인 후 꿈나무들의 자세를 직접 동영상으로 찍은 최경주는 레슨 전과 후의 자세를 비교 분석하며 “한 시간도 안 돼서 많이 좋아졌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더 길러야 한다. 병커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 틈만 나면 병커에 살아라”며 “함부로 골프를 대하면 안 된다. 대중해서는 절대 좋은 퀄리티의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될 수 없다”고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함평골프고 3학년 김서진은 “그동안 병커장

에 대한 중요함을 잘 몰랐던 것 같다. 레슨을 계기로 장소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2학년에게 재학 중인 김윤후는 “직접 프로님이 잡아주시고 하니깐 확실히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특히 그립 잡는 게 좀 헛갈렸는데 확실하게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레슨을 마친 뒤 최경주 프로는 이날 지도했던 가장 중요한 5가지 요소인 ‘그립’ ‘스윙 플레인’ ‘파워’ ‘스피드’ ‘밸런스’를 다시 한번 꿈나무들에게 상기시키며 “1년 뒤에 다시 물어보겠다”고 잊지 말 것을 강조했다.

최경주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골프 꿈나무들이 앞으로 나아가 방향이 조금씩 정해지지 않으나 싶다. 그동안은 ‘왜 나는 안 될까, 왜 이런 반복적인 실수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을 것이다”며 “이 씨앗들이 언젠,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이들이 5년, 10년 후에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이나 환경을 어떻게 바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나는 그 기회를 주고 싶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